

글로벌 섬 교류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12월 일본의 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을 방문해 한일 양국간 섬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텃습니다. 「한국의 섬, 세계의 섬」에서는 순차적으로 방문 간담회의 내용과 일본의 섬 현황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조사연구와 홍보, 자료수집, 연수활동 및 조성사업 등 한국섬진흥원과 가장 유사한 '일본이도센터'의 창간 축하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일본이도센터 개요(사무소 : 도쿄 나가타초)

- 1966년 재단법인으로 시작하여, 2013년 공익재단법인으로 인가
- 일본 내 1,724개 시정촌 중 136개 시정촌이 회원으로 가입

일본이도센터 간담회(2022년 12월 14일)



「한국의 섬, 세계의 섬」 창간을 축하하며



공익재단법인 일본이도센터
코지마 아이노스케 전무이사

「한국의 섬, 세계의 섬」 창간에 즈음하여 한마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본이도센터는, 1953년(「이도 진흥법」이 제정된 해)에 조직된 「전국 이도 진흥 협의회」를 모체로, 196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섬을 보유한 시정촌에서 조직하여, 지금까지 섬에 관한 조사 연구나 연수회의 개최, 홍보 활동이나 정보 발신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내 각총리대신으로부터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인가되어 현재는 가 고시마현 야쿠시마초의 아라키 코우지 정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인도 수는 약 420개(본토와 연륙된 섬 포함)이지만, 한국은 약 464개를 가지고 있어서 유인도에 한하면 한국은 일본 이상의 '섬 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 실정을 바탕으로 「섬 발전 촉진법」을 통하여 자리매김한 정부의 국제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조사와 비전의 설정, '섬의 날' 제정과 이벤트 개최, 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섬 전문 리더 육성, 세계 각국과의 교류 등 수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도쿄도 하치조지마와 나가사키현 이키섬을 방문해, 각각의 특징을 살린 산업 진흥이나 새로운 일손의 확보, 텔레워크의 실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근거한 각종 사업 등, 일본의 선진적인 섬들의 노력을 예의주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본 센터와의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법 제도 및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향후 국제교류의 방향성 등에 대해 활발한 정보를 교환하여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동호 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해 주신 귀 기관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섬 보유국입니다. 섬은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보전, 해양자원 이용, 다양한 문화 계승, 자연환경 보전 등 중요하고 다채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섬 정책과 섬 진흥 노력에 대해 함께 조사 연구와 의견 교환을 추진하여 섬들이 갖는 가치를 더욱 높이면서 정주 여건의 근본적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섬의 발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섬, 세계의 섬」 발간을 축하드리며, 한국섬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학력 게이오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국토교통성 이도진흥과장
내각부 대신 관방 심의관,
내각부 대신 관방 정책 총괄관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장
공익재단법인 일본이도센터
전무이사(현재)